



“건강중국 2030” 계획 요강 발표

김유미 연구원

중국 국무원은 건강분야에 대한 중장기 전략적 정책으로 “건강중국 2030” 계획 요강을 발표하였음.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고 건강관련 산업규모를 확대시킬 계획임. 최근 중국은 고령화, 도시화, 소득증대로 인해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의료비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중국 정부는 “건강중국 2030”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급속히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영의료보험의 가입을 장려하고 활성화시킬 계획임.

■ 지난 10월 25일 중국 국무원은 국민 건강수준을 선진국형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중장기 정책으로 “건강중국 2030” 계획 요강(“健康中国 2030” 规划纲要)을 발표하였음.

- “건강중국 2030”은 건강한 생활방식 및 건강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요 건강지표를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2030년까지 평균기대수명을 79세로 늘리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을 13%, 개인의료비 지출 비중을 25% 수준으로 낮추는 등 건강지표 목표를 수립함.
- 또한 헬스케어산업의 투자를 확대하여 2015년 3조 위안에서 2020년에는 8조 위안, 2030년에는 16조 위안 규모로 발전시킬 계획임.
- 세부내용으로는 건강한 생활 및 환경 조성, 의약품유통 및 식품안전 강화, 보건서비스 및 건강보험 시스템 정비,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헬스케어산업 발전 등임.
 - 보건교육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고 의약품 및 위생건강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서비스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취약계층의 보건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
 - 민영건강보험의 보완을 통해 건강보험시스템을 정비하고 건강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빅데이터 활용을 추진하며, 양로, 스포츠 등 헬스케어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시장을 확대하고자 함.

■ 중국은 고령화, 도시화, 소득증대 등으로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정부의 헬스케어 육성정책으로 의료비 지출은 빠르게 증가함.

- 2015년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6.1%(2.2억 명)로 2050년에는 31.2%(4억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2030년에는 전체인구의 35%가 중산층에 편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¹⁾ 소득이 증대될수록 생활수준에 맞는 맞춤형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²⁾
- 현재 헬스케어산업의 비중은 GDP 대비 5.6%에 불과하나 의료비 지출이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2020년에는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헬스케어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됨.³⁾
- 중국의 일인당 의료비 지출비중은 7.2%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1991~2013년 연평균 증가율이 17.49%에 달해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음.⁴⁾

■ 중국 정부는 “건강중국 2030”을 통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 지출의 관리 방안으로 여러 가지 형식의 보충보험과 민영건강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공공의료 이외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함.

-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요를 공공의료서비스 수준이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어 고가 민영병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이에 따라 건강보험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건강보험⁵⁾이 이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이므로 민영건강보험을 통해 의료기금의 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최근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와 국가중의약관리국은 고갈 위기에 처한 공공건강보험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공립병원의 예산 목표를 설정하고 건강보험 지출의 관리체계를 강화함.
- 현재 민영건강보험이 전체 의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하나 정부의 세금우대 정책을 통해 보험가입을 권장하고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및 상품개발 장려를 통해 민영건강보험을 발전시켜 전체 의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시킬 계획임. [kiri](#)

1)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6. 11. 2), “The Chieses consumer in 2030”.
여기서 중산층은 연간 가처분소득 2,100만 달러에서 1만 800달러 사이인 계층, 중상위층은 6만 7천~20만 위안인 계층, 중상위층은 20만 위안 이상인 계층으로 정의함.

2) hurun(2013), “Hurun Wealth Report 2013”.

3) 国务院关于促进健康服务业发展的若干意见, 國發(2013. 10), 40호; Asia Pacific Healthcare Outlook 2012-2015(2012), Frost&Sullivan.

4) 중국국가통계국(NBS), 2014년 일인당 소비지출 중 보건의료분야 지출은 1,044,8위안(7.2%)임.

5) 중국의 공공건강보험으로는 도시종업원 기본건강보험, 도시주민 기본건강보험, 신농촌합작 건강보험 등이 있으며, 전체인구의 95% 이상이 3대 공공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이는 보험별로 보장수준이 상이하고, 지역 간 보장수준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중대한 질병 및 입원 중심으로 보장이 이루어져 외래 및 만성질환 등은 보험 혜택을 받기가 어려움.